

「繼續態」의 機能 및 通時的 研究

이 창 익*

目 次

- I. 序 論
- II. 古代語의 「繼續態」
 - 1. 接頭語 'あり'
 - 2. 接尾語 'ふ'
 - 3. 助動詞 'り・たり'
 - 4. 動詞의 重複形
 - 5. 助詞 'つつ'
 - 6. 補助動詞 'ーるる'
- III. 現代語의 繼續態
 - 1. ーテイル
 - 2. 'ーテイル'·'ーテイク'
 - 3. 動詞의 連用形에 接하는 'ーだす'
'ーはじめる'·'ーつづける'
 - 4. 助詞 'つつある'
- IV. 結 論

I. 序 論

일본어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문법 기능이 있다. 동작태의 하나인 '繼續態'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먼저 동사가 중복해서

- a. 春雨の止まず降る降る(万葉10·1932)

처럼 동작의 '진행 중'임을 뜻하는 것이 있고

*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Dept.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b. 手を取る取るおひつかならめもの師なりかし(源氏・若菜下)

처럼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현대어의 예인

c. 子供が遊んでいる

d. 花が散っている

는 각각 동작의 '진행 중', '결과의 상태'를 뜻하고 있다. 한편 고대의 조동사인

e. 降雨れり

라고 하면, 비는 지금 현재 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f. 降雨りたり

라고 할 때에는 비가 내린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일본어의 「繼續態」는 동사의 성질(예 a-d), 보조형식(예 e·f) 등에 의하여 성립의 의미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대어에서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繼續態」를 나타내는 주요한 문법 기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II. 古代語의 「繼續態」

1. 接頭語 'あり'

존재사 'あり'의 연용형을 접두어로 사용하여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용법은 上代부터 있었다.

a. 麗し女をありと聞こしてき婚ひにあり(阿里)立たし婚ひにあり(阿里)通はせ(古事記·歌謠2)

b. 大君の命のままざらさの心を待ちてあり(安里)巡り事し終はらば(万葉20·4331)

山田孝雄氏¹⁾에 의하면, 접사는 의의를 나타내는 것과 문법적 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語 앞에 오는 접두어인 'い·かさ·た·そ'와, 語 밑에 오는 접미어인 'たら·ども·ら·ち·り·か'를 들고 있고, 후자는 명사·형용사·동사·부사를 만드는 'さ'를 들었다. 그러나 氏의 論에서는 'あり'의 접두적 용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접두어 'あり'는 동사에 붙는 것으로 동사의 본의에 계속의 意를 첨가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동사에만 접속하고 다른 품사와는 접속하지 않는다. 上代の 万葉集의 예에는 동사에

1) 山田孝雄 「奈良朝文法史」 文館 昭和28

접두하여 동작·작용의 계속, 반복, 결과의 존재 등 세 가지 의미로 분화된다.

- c. 隠したる梶棹なくて渡り守舟貸さめやもしはあり待て(万葉10·2088)
- d. 春日野に齊く三諸の梅の花榮えてあり待て歸り來るまで(万葉19·4241)
- e. かくしつつあり慰めて玉の緒の絶えて別ればすべなかるべし(万葉11·2826)
- f. 在千瀉あり慰めて行かめども家なる妹いいふかしみせむ(万葉12·3161)

등은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c) (d)에는 「しましば」, 「歸り來るまで」 등의 부사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의하여 계속성을 갖는 '待つ'의 의미가 한층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보면

- g. 泉の川の上つ瀬に打橋渡し淡瀬には浮き橋渡しあり通ひ仕え奉らむ萬代までに(万葉17·3907)
- h. 二上山に延ふつたの行きは別れずあり通ひいや年のはに(万葉17·3991)

'あり' 밑의 동사인 '通ふ'는 동사자체의 의미에 있어서도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접두어 'あり'가 붙어 반복의 동작 작용이 한층 더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萬代まで」 「いや年のはに」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二句가 동작·작용의 계속의 의미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해 준다.

- i. 日の皇子あらたへの藤井が原に大御門始めたまひて壇安の堤の上にあり立たし見したまへば(万葉1·52)
- j. 近江の海の泊まり八十あり八十島の島の崎て立てる花橋を(万葉13·3239)

i, j는 동작 작용이 행하여져서 그같은 상태의 계속을 뜻한다.

이상의 예에서 'あり'는 '慰める'와 같은 동작성 동사에 '通ふ'와 같은 상태성 동사에 붙어 각각 동작 작용의 계속·반복·결과 상태의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 k. 朝露にはほひそめたる秋山にしぐれな降りそあり渡るがね(万葉10·2179)
- l. 解き衣の戀ひ亂れつつ浮き砂生きて我はあり渡るかも(万葉11·2504)

k, l의 渡る처럼 그 의미가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위치를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ずっと……し續ける」의 의미이다. 거기에 'あり'가 붙어 동사가 갖고 있는 계속의 의미가 점두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결합하여 동작 작용의 계속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あり'가 갖는 잠재적인 존재의 의미도 다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편 'あり'와 'つつ'사이에 동사의 연용형이 끼어 계속의 의미를 강하게 하는 예도 있다.

- m. 翼なすあり通ひつつ……松は知るらむ(万葉2·145)

中古에 들어서면 あり의 용법이 한정된 동사에만 붙게 되는 듯하다. 즉 용법 자체가 쇠퇴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物語, 歌集 등의 예는 아주 적지만 몇 개의 예를 보면

- n. 御ありさまこそかなしけれとつふやきなけくさる方にありつきたりしあなたの年ころは(源氏・蓬生)
- o. いとよはれたりとてありならばぬ人はここにてはかなきこともえせず(蜻蛉)
- p. 精進齋戒をしつつ存り過ぐし(榮華物語・初花)
- q. かなしさのそのゆふぐれのままならばありへて人にとはれましやは(金葉和歌集 615)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계속성을 갖는 동사에 'あり'가 접속하여 그 의미를 강하게 하였다.²⁾ 中世의 'あり'는 급격한 쇠퇴를 맞게 된다. 「新古今和歌集」에 의하면 3개의 예밖에 보이지 않는다.³⁾ 그 한 예인

- r. あり來つつ見れどもいさぎよき人の心をわれ忘れめや(万葉19・1863)

r은 'あり'와 'つつ'사이에서 동사의 연용형이 있어 계속의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 그 후 남북조 시대의 「増鏡」⁴⁾에는 다음과 같은 한 예가 보이는데 용법은 前述한 바와 같다.

- s. ありへけむものとの千年にふりもせで我君ちぎる千世の若松(増鏡上・おどろのした)

이상 접두어 'あり'의 계속성을 보았다. 결국 용법이 한정되면서 중세 초쯤부터 쇠퇴하게 된다. 그 이유를 굳이 들자면 조동사 'り・たり'가 中古에 이미 일반화되어 'あり'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또한 語構成面으로 보아도 'り・たり'는 존재사 'あり'가 동사 뒤에 붙어서 각각 '동사+あり', '동사+てあり'에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あり'의 용법의 증가가 조동사의 계속적 용법의 증가를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接尾語 'ふ'

본래 'ふ'는 음운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왔으나, 현재는 접미어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山田氏⁵⁾는 'ふ'는 미연형을 받아 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는 복합어미(조동사)라 하였다.

'ふ'는 동사에만 붙고 형용사, 형용동사에는 붙지 않는다. 보통 4단 활용동사의 미연형을 받아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하고 있다.

어원은 'ふ'를 동사 經(ふ)와 관련시키는 설도 있지만 4단활용동사인 '相ふ·습ふ'는 본래 동사 연용형에 붙는 것이고, 동사 'あふ'와의 복잡한 형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 a. いつしか都を見むと思ひつつ語らひ居れど(万葉5・'ふ'6)

'語る(可多流)'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かたらひ'

- 2) '慣ふ'의 경우 원래 미연형에 계속을 나타내는 ぶ가 접미화하여 계속성을 한층 강하게 한 動詞이다. 經의 경우는 ぶ의 어원이라고도 불려져 역시 계속성이 강한 動詞라 할 수 있다.
- 3) 瀧澤貞夫 「新古今集總索引」明治書院 昭和 53 여기에서는 '一經'이 2 예, '一來'가 1例 보임.
- 4) 岩佐正外 2人 校注 「神皇正統記 増鏡」岩波書店 1979, p.254.
- 5) 注 1)과 같음.

는 서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라고 山田氏는 구별하였다.

‘相ふ·合ふ’는 4단활용으로 ‘ふ’활용과 같고 ‘相·合’은 다른 동사와 복합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ふ’활용은 거의 八行 4단활용동사에 붙는데, 下二段型으로 활용한 예도 있다.

- b. 流らふる(流經)つま吹く風の寒き夜に我が背の君はひとりか寝らむ(万葉1·59)
- c. 殊雪かはだれに降ると見るまでに流らへ(流倍)散は何の花ぞらむ(万葉8·1420)

山田氏에 의하면 c는 下二段動詞의 ‘流る’를 ‘流ら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下二段活用에서 성립했기 때문이고, b의 ‘ながらふる’라고 읽어 온 것도 下二段 활용이 성립한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同氏는 『万葉集古義總論』⁶⁾에서 ‘ながる’와 ‘ながらふ’에 대하여

流はその流ることを直にいひ、那我良布はその流ることの引つづきて絶す長緩しき意味あるとき
に在ることなりと知べし.

라고 구별하였다. 즉 ‘ふ’가 붙어서 ‘계속’의 과정이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ふ’가 삼음절 이상의 四段動詞에 붙는 경우 동사의 미연형이 才음과 교체하기도 한다.”

- d. 立木の茂に咲く花も移ろひにけり(万葉3·478)
 - e. ハナの伴の緒は大君にまつろふものと定まれる官にしあれば(万葉19·4214)
- d, e의 어간은 ‘ウツ·マツ’인데 e인 ‘まつろふ’는 [처럼 ‘まつらふ’형도 나타난다.

- f. その蛇を蜻蛉はや囁ひ 昆ふ虫も大君にまつらふ(日本書紀 歌謠 75)

‘ふ’의 의미는 前述한 바와 같은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し續ける」「ずっと……する」처럼 동작 작용이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의미이다.

- g. この蠻や何處の蠻百傳ふ角鹿の蠻横去らふ何處に到る(古事記中·43)

이 경우의 ‘ふ’는 ‘ふ’를 받는 동사가 계속성이 있는 동사이므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 「次第に……する」「どンドン……いてゆく」처럼 동작작용의 변화가 진행해 가는 의미이다.

- h. 常なりし笑まひ振舞いや日異に變はらふ見れば悲しきろかも(万葉3·478)

이 동사는 작용의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しきりに……する」「何回も繰り返して……する」처럼 반복해서 행하여지는 의미이다.

6) 山田孝雄 「万葉集古義總論」圖書刊行會 大正 3.

7) 예를 들어 守る+ある는 ‘守りあふ’인데 i오음의 탈락으로 守らふ가 된다.

i. 晝はも咲かひ暮らし夜はも息づき明かし年長く病みし渡れば(万葉5·887)

이것은 순간적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 동작·작용이 반복해서 연속하는 것을 ‘계속’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각예는 동사에 아주 밀착하여 그 사이에 조동사 등 다른 품사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中古 이후에는 조동사로서의 특징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특정의 한정된 동사에만 형식적으로 붙어 접미화하므로 조동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단순한 동사가 된 것에는 ‘呼はふ·すまふ·習ふ·語らふ·向かふ·慣らふ·計らふ’ 등이 있고 ‘語らひ·やまひ·渡らひ·笑まひ’ 등 명사화한 형태 있다.

3. 助動詞 ‘り·たり’

「り·たり」는 완료 또는 확인의 조동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두 단어는 존재사인 ‘あり’의 변형이므로 동작·작용의 계속 내지는 그 경과에 의해 성립한 ‘결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본 뜻이라고 볼 수 있다.

「り·たり」의 차는 미소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り’가 동작 작용의 계속 ‘たり’는 결과의 존재를 나타내는 조동사라 하고 있다. ‘り’는 上接의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降雨れり’라 할 때, ‘雨が現に降っている’라는 의미 즉 동작의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降雨りたり’라고 할 때는 ‘雨が降ってその地面がぬれている’라는 동작 작용의 ‘결과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진다. ‘たり’의 원형인 ‘てあり’는 「古事記」 「万葉集」 등에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a. 吾はいなしこめしこめき織き國に到りて在りけり(上·伊耶那岐命の楔袂)

a은 완료 내지 ‘결과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万葉集」에서도 ‘てあり’ ‘たり’는 병행하여 나타난다.

b. 天地と共に久しく住まはむと思ひてありし家の庭はも(万葉4·578)

c. 死なばこそ相見ずあらめ生きてあらば 白髪兒らに生ひざらめやも(万葉16·3792)

d. 花のみしにほひてあれば見るごとにまして徳はゆいかにして忘るものそ戀といふものを(万葉8·1629)

b c는 ‘계속’, d는 동작 작용에 의하여 성립한 ‘결과의 존재’를 나타낸다. b c에서 보듯이 ‘たり’의 원형인 ‘てあり’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てあり’에서 ‘たり’로의 변화에 대해서 此島正年氏は ‘てあり’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사용되는 예를 들었다.

e. 人さには萬ちてはあれどき(万葉5·884)

f. めづらしみわが念ふ君は秋山の初もみぢばに似てこそ有りけれ(万葉8·1584)

이런 경우는 'たり'에 형태적 독립성이 있음에 따라 意義的으로도 본래의 존재의 의미가 꽤 있다. 거기에 'たり'意義的 독립성이 차츰 희박하게 됨과 동시에 'てあり'는 'たり'로 변화해 갔다고 하였다.

'たり'에는 'り'보다 광범위하게 동사 또는 일부의 조동사를 받는 편리함도 있으므로 차츰, 극히 한정된 활용어 밖에 받지 않는 'り'용법에까지 平安時代에는 'り'가 쇠퇴하는 경향이 보인다. 橋本四郎氏⁹⁾에 의하면 「古今集」이나 「土佐日記」에서는 'り'가 많은데 다른 것에서는 'たり'가 많다. 「竹取物語」 부근에서부터 역전하여 'たり'가 우위에 서게 된다.

'り'·'たり'의 차는 전술처럼 동작·작용의 계속은 'り'인데 반해 결과의 존재는 'たり'가 本義이다. 그러나 兩語는 꼭 본의대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g. 海人娘子らがらせる領巾も照るがに手に巻ける玉もゆららに(万葉13·3243)

h. かの白く咲けるをなむ 多顔と申しはべる花の名は人めきて(源氏·夕顔)

'巻く·咲く'는 동작 작용이 행하여지는 것을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たり'는

i. ひさかたの月は照りたりいとまなくあまのいざりはともしあへり見ゆ(万葉15·3672)

'결과의 존재'가 아닌 '계속·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j. おほとんには 覺束なく恨めしくおぼしたれど(源氏·帚木)

'たり'는 시간적인 폭을 갖는 동사에 붙었을 때, 그 상태대로 있음을 나타낸다. 즉 '思ふ'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사의 의미에 대하여 金田一氏は 일본어 동사를 상태동사(ある·出来る·切れる 등) 계속동사(讀む, 書く, 笑う 등) 순간동사(死ぬ, 点く, 消える 등)과 第四種の 동사(すぐれる 등) 등 4대별하였다. 즉 상태동사는 '一テイル'를 안 붙이고 그대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접속동사는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순간동사는 결과의 존재를, 제 4종의 동사는 언제나 '一テイル' 형으로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계속'을 本義로 하는 'り'는 계속동사에 붙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k. 長き夜を君に戀ひつつ生けらずは咲きて散りにし花ならましを(万葉10·2282)

l. 我が背子を今か今かと出で見れば洙雪降り庭もほどろに(万葉10·2323)

'계속'이란 것은 그 범위를 넓게 보면 동작·작용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8) 此島正年 「國語助動詞の研究」 櫻風社, 昭和 49年, pp. 186~187.

9) 橋本四郎 「古典·現代語 助詞·助動詞詳説」 松村明編 學燈社, 昭和 44, p. 137.

그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계속'인 것이다. 즉 '상태의 계속'인 것이다.

m. 今よりはつぎで降らなむわが宿のすすきおしなみ降れる白雪 (古今·318)

m 'り'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음을 뜻하지 않고 이미 내린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今よりはつぎで'는 「これからは 引き續いて(降ってもらいたい)」로서 「雪がもう降って積っている状態」를 나타낸다. 이런 수식구에 의해 'ふるり'의 의미가 한층 명확해진다.

한편 순간동사에 'り'가 붙어 '결과의 존재'를 나타내는 예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n. 梅の花今咲けるごと散り過ぎす我が家の園にありこせぬがも (万葉5·816)

또한 '결과의 존재'를 본의하는 하는 'たり' 경우 순간동사에 붙으면 그 의의가 잘 나타나는데 o가 그것이다.

o. 残りたる雪に交じれる梅の花早くな散りそ雪は消ぬとも (万葉5·849)

또한 'たり'는 'り'에 다가서게 되는데 계속동사에 붙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용법도 보인다.

p. 神の皇子の出でましの手火の光そこだ照りたる (万葉2·230)

이상 일반적으로 완료조동사로 분류되고 있는 'り·たり'는 동작·작용의 '계속' 내지는 그 경과에 의해 성립한 결과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動詞의 重複形

동일동사가 중복형식을 취하여 동작 작용의 반복 내지는 계속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

◎ 梅子は何も云わずに顔に八の字を寄せて笑いながら手を振り振り代助の言葉を庶ぎった (それから 1996)

上代에는 동사의 중지형의 중복형은 활발하였다.¹⁰⁾

- 春雨の止まず降る降る我が戀ふる人の目すらを相見せなくに (万葉10·1932)
- 紫草を草と別く別く伏す鹿の野は異にして心は同じ (万葉12·3099)
- 入問道の大屋が原のいはるつら引かばぬるぬる我にな絶えそね (万葉14·3378)
- 山吹は日に日に咲きぬ愛しと我が思ふ君はしくしく思ほゆ (万葉17·3974)

a, b는 두 종류의 동작 작용이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데 대하여 c가 '결과의 존

10) 山田孝雄씨의 전게서 p. 356에 의하면 '用言の原形(終止形)を重ねて修飾格に用いることはこの期には廣く行はれたるものとぼし'라 하였다.

재'를, d는 '반복'을 나타낸다. 한편 『万葉集』에는

e. 後れ居て戀ひつつあらずは田子の浦の海人ならましを玉藻を刈る刈る(万葉12·3205)

와 같이 동사의 중지형의 중복으로 '계속'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f. 世の中は空しきものと知る時しいよよますます悲しかりけり(万葉5·793)

g. ますますも馬荷に表荷打つといることのごと(万葉5·897)

f, g는 정태부사로서 연용수식기능을 갖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부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f는 정태부사인 'いよ(い)よ'를 동반하여 'ますます'의 의미를 한층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¹¹⁾ g처럼 조사인 'も'를 동반하여 부사로 고정되고 있음도 보여진다.¹²⁾ 橋本四郎씨는 이런 동사의 단독형은 확실히 시간적인 관념이 암시되고 '계속' 내지 '반복'을 연상하는 語여서 정태성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형이 일찍부터 부사적 용법을 갖는다고 하였다.¹³⁾ 즉 중지형에 비하여 연용형의 중복형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용례도 적다. 특수어에 고정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h. つがの木のいゆ繼ぎに玉葛絶ゆる……ゆまず通はむ(万葉3·324)

i. 生れもさむ御子の繼ぎ繼ぎ 天の下知らしませと(万葉1·1047)

'つきつき'는 거의 유일한 예인데 h는 'に'를 동반하여 부사적으로 쓰였다. 단독으로 쓰이는 중복형보다 'て'를 동반한 용법이 활발하였던 듯하다.

j. 我が身は成り成りて成り余れる處一 處在り(古事記 上·伊邪那岐命と伊邪那美命)

k. しなざかる越に五年住み住みて立ち別れまく惜しき夕かも(万葉19·4250)

j, k의 의미는 시간적인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동사의 동작성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단 j처럼 순간동사인 'なる'를 예외로 하면 '계속'을 나타내는 연용형의 중복형인 동사는 '계속동사'로서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l. ありありて後も逢はむと言のみを堅く言ひつつ逢ふとはなしに(万葉12·3113)

m. いとこ汝背の君をりをりて物に行くとは韓國の虎といふ神を(万葉16·3885)

l, m처럼 상태성동사(존재동사)인 'ある·をる'가 연용형의 중복형을 취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오히려 '상태의 계속'의 뜻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런 형식은 '繼續態'를 갖지 않는 현대어 'ある·お

11) 外에 'しくしく'의 예가 보이고 玉村文郎씨의 論인 「連用修飾句ナクナクニツイテノ覚え書き」에 의하면 'か～すがえす'도 옛날부터 부사가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12) 助詞 'に'를 동반하는 것도 있다.

13) 橋本四郎 「動詞の重複形」 『國語國文』 第218卷 昭和34

る' 또는 j와 같은 '순간동사'라도 그 중복형에 의하여 '계속'의 의미가 성립하는 것과 비교하면 고대의 용법이 폭이 넓다 하겠다.

중고에 들어와서도 종지형의 중복형은 활발하였다. 日野資純氏¹⁴⁾에 의하면 平安朝의 日記, 物語에는 이 형식의 27語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泣く泣く 返す返す 見る見る'가 사용의 빈도가 높고 현대에 이르러도 같다고 하였다. 그 외에 '言ふ, 思ふ, 聞く, 知る, なげく, 見す, ゆく, 笑ふ, 切る, めぐる' 등은 그 당시의 주요한 문학작품에 일회 이상 나타나고 있어 日記, 物語의 기본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종지형의 중복형인 동사는 계속성을 갖는 동사에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知る, 取る, 切る' 같은 동사는 '계속동사'가 아니고 '순간동사'이다. 그래서 '取る, 切る'는 중복에 의해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n. 我が薄に手を切る切る摘んだる菜を親やまぼろらむ姑ゆ食ふらむかへらや(土佐日記 1月 9日)

n의 예가 그것인데 같은 '순간동사'인 '知る'는 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연용형의 중복형은 종지형에 비하면 실례는 적지만 조사 'て'를 동반하여 쓰여진다.

o. 戀ひ戀ひてまれにこよひぞ逢坂のあ木縮つけ鳥は鳴かずもあらなむ(古今 34)

즉 o처럼 多用되었다. 이는 단독인 경우보다 진행해가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다음 용례 p처럼 'つもる'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의미가 아닌, 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

p. 白雪のつもりつもりてあたまの年をあまたますぐしつるかな(古今 1005)

중세에는 종지형의 중복형은 점차 고정되기 시작하고 부사적 용법을 갖는다.¹⁵⁾ 이에 반해 연용형의 중복형은 이미 일반화하여 용법이 많아졌다. イソボ物語에

◎ イソボ少しも臆した氣色も無う諸人の中を臆めず憚らず踏み越え踏み越えさし通って高座に直り
(イソボが生涯の物語の略)

ロドリゲ스의 『日本大文典』에서는 '笑ひ笑ひ参った' '食ひ食ひ來た' '泣き泣き生れた' 등의 예와 '泣き泣き生れた' '食ふ食ふ参った' 등 연용형 및 종지형의 예를 전부 들고 있다. 즉 이러한 종지형의 형식이 이 시대까지는 쇠퇴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동사의 종지형 연용형식에 의해 동작 작용의 '계속·반복·결과의 존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 助詞 'つつ'

'つつ'는 현대어에도 있고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하여 '반복·계속'을 나타내고 두 종의 동작·

14) 日野資純 「中古の日記・物語文における動詞終止形の反復用法について」 『人文論集』 静岡文學 第20號 昭和 44

15) 'なくなく, ますます, わななくわななく, ひくひく' 등

작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의 접속을 나타낸다.

a. 奈良の我家にぬえ鳥のうら嘆けしつつ下戀ひに思ひうぶれ(萬葉15·3978)

a는 반복 즉 한번의 동작·작용이 완료해서 또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의미를 나타낸다. 보통 '순간동사'에 붙어서 이 의미가 되는데 이는 '순간동사' 자신이 동작·작용이 행하여지는 시간적인 폭이 적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b. 鴨山の岩根しまける我をかも知らにと妹が待ちつつあるらむ(萬葉2·223)

b는 동작 작용이 진행해 가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뒤에 'あり'가 붙어 '一つつあり'의 형이다. 이는 'あり'가 '계속'의 'つつ'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c. 白鳥の冊羽山松の待ちつつそ我が戀ひ渡るこの月ごろを(萬葉4·588)

c는 두 종의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待つ'라는 동작·작용이 행하여지는 한편 동시에 다른 동작인 '戀ふ'가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d. 梅の花散らくはいづくしかつにこの城の山に雪は降りつつ(萬葉5·823)

c는 연용수식부, d는文末에 나타나는 예인데

e. 黙もあらむ時も鳴かなかひぐらしの物思ふ時に鳴きつつもとな(萬葉10·1964)

e처럼 접속의 기능이 아닌 下句가 절단되어 확인조동사에 닮은 예도 있다. 山田氏は 동사의 중지형을 겹쳐 수식격을 나타내는 방법에서 조동사 'つ'의 중지형을 중복하여 'つつ'가 성립했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つ'는 조동사화하기 전에 어원이 '果つ' 또는 '棄つ'라 하였는데 동사의 중복형은 있지만 조동사의 중복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つ'는 완료조동사인데 'つつ'는 '반복·계속'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완료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

한편 橋本氏¹⁷⁾는 萬葉集의 예를 들면서

◎ 梓乃末に玉巻きかくすすそ寝ななりにし(萬葉14·3487)

◎ 小菅ろの末の吹く風のあとすすかなしけ兒ろを思ひ過ごさむ(萬葉14·3564)

위의 'すす'로부터 'つつ'의 기원을 찾았다. 즉 'つつ'의 어원은 サ變 動詞 '爲'의 중복인 'すす'가 형식화해서 다른 동사를 받게 된 것이다. 'つつ'도 동사를 받아 '반복·계속'이 본래 의미라 생각할 때 동사인 'すす'에서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 음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마찰음 [S]와 파찰음 [tʃ]의 교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つつ'는 동사의 중복형에서 성

16) 전계서 p.357.

17) 林木 「萬葉集の助動詞」 「萬葉集大成 言論篇」 平凡社, 昭和30.

립하고 자유롭게 동사를 받아 '반복·계속'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단독동사 그 자체의 중복형이 작용의 '반복·계속'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음을 알았다.

- f. うち霧らし雪は降りつつしかすがに我家の園にうぐひす鳴くも(万葉8・1441)
- g. 春雨の止まず降る降る我が戀ふる人の目すらを相見せなくに(万葉10・1933)

f, g처럼 兩形이 보이는데 동사의 중복형인 g가 오랜 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前述의 日野氏에 의하면 平安期の 假名文에 있어서 'いふいふ'와 'いひつつ', 'みるみる'와 '見つつ', 'なげくなげく'와 'なげきつつ' '思ふ思ふ'와 '思ひつつ' 등 이들의 용법의 차를 비교하였다. 동사의 '중지형의 중복형'은 「구체적·직접적」으로 급박한 장면에 나타나는데 대하여 '연용형+つつ'는 「간접적·추상적」으로 여유있는 장면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복' 내지 계속을 나타내는 예 이외에

- h. 濡れつつぞしひて折りつる年のうちに春はいくかもあらむと思へば(古今 133)

'濡れる' 같은 '상태동사'에 'つつ'가 붙으면 진행 중의 의미가 아닌 '결과의 상태'가 존속함을 나타낸다.

- i. 上野まぐはしまとに朝日さしまきはしもなありつつ(万葉14・3407)

i는 'あり'에 'つつ'가 붙어 'ずっとこのままにして'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 서술한 것은 시간적 의미인 '반복' 내지는 '계속'의 'つつ'인데 시간의 추이를 동반하는 동시에 공간적 넓이로서 동작·작용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의미를 포함하는 'つつ'까지도 생략할 수 있다.

- j. 娘子らが玉裳裾引くこの庭に秋風吹きて花は散りつつ(万葉20・4452)

이 '散りつつ'는 '散る'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복수 주어의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순간적인 동작·작용이라도 'つつ'가 붙어 '반복·계속'의 의미가 표현되는데 현대어에서는 보통 '散る' 같은 '순간동사'에 '-ライル'가 붙어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지 않고 '결과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 k. 遠くあればわびてもあるを里近くありと聞きつつ見ぬがすべなき(万葉4・757)

k처럼 '반복·계속'의 뜻이 희박하게 되고 上下 두 종의 동작·작용이 모순되게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 l. しとのきて薄き眉根をいたづらに掻かしめつつも逢はぬ人かも(万葉12・2903)

조사 'も'가 붙어 역접을 나타내는데 현대어에서는 'つつも'가 역접의 'ながら' 또는 'ながらも'의 뜻에 해당한다. 또한 室町時代에는 「日本大文典」에

「書物の講義で教えられるやうに、これらの助詞はすべて書きことばの種種の文體に使ふものである」

라 하여 다른 고전적인 조사, 조동사와 함께 ‘つつ’를 들었다.

江戸時代가 되면 이 용법은 아주 좁아져 話し言葉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접인

◎ それをしりつつ迷ふやつ (浮世床 初下)

처럼 ‘しりつつ’가 一語化하여 넓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¹⁸⁾

이처럼 이 용법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는데 明治時代に 들어와 다시 부활하였다.

6. 補助動詞 ‘- ゐる’

— 현대어로의 변천 —

‘- ゐる’는 「古語大辭典」에

① 座る, 腰を下ろす

② あるものにとどまっている

등으로 되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橋を庭前に植ゑ生ほし立ちて居てのちに悔ゆとも験あらめやも (万葉3·410)

또는 ‘座る’와 거의 같은 의미로

◎ 六の宮…これも居給ひぬ (前田本字津保·藏開上)

이는 ‘着座する, 座に樂ち着く’의 뜻도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ゐる는 점차 존재동사화해서 ‘とこに 在るね, おる’의 뜻을 또는 보조동사화해서 ‘一所に落ち着いている’라는 뜻으로서의 용법도 있어 ‘ある動作の存續’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上代에서 中古까지의 용례를 보면

a. 馬來田の嶺ろに隠り居かくだにも國の遠かば汝が目欲りせお (万葉 14·3383)

b. 乳母はうちも臥さればものもおぼえず起きるたり (源氏·岩紫)

a, b의 ‘ゐる’는 한정수식하여 ‘……の状態_で座っている’라는 의미와 보조동사적인 ‘存在’의 의미로 ‘前の動作をしてその動作_でいる’라고 하는 2개의 동작이 병렬적 계속적으로 실현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¹⁹⁾

중세가 되면 ‘연용형+ゐる형’과 동사의 연용형의 音便形을 받은 ‘て+ゐる형’이 병행하였

18) 湯澤幸吉郎 「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昭和 56, p.600.

19) 原田芳起씨에 의하면 存在動詞化와 補助動詞化란 서로 동반하는 것인데 中古까지는 ‘座っている」とどまっている’의 의미가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²⁰⁾ 이는 조사인 ‘て’가 동사와 する 사이에 삽입한 형인데 전자와 후자의 예는 c, d와 같다.

- c. あふれるたる兵共, 或はよろいきていまだ甲をきぬもあり(平家上・卷第二)
- d. 親子三人念佛してゐたる處に 竹のみ戸をほとほとうちたくもの出来たり(平家上・卷第一)

c의 경우, 정적인 동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d의 ‘て’에 접하는 동사는 ‘念佛して’ 외에 ‘しばたいて, 沈酔して, 安じて, 煩うて’ 등 동적 동사 및 ‘閉ぢて, 立ち別れて’와 같은 순간동사가 많이 나타나는 듯하다. d의 て는 上・下를 접속하는 기능인데 上の 서술을 下쪽으로 계속적 관계를 명료하게 나타낸다.

‘-てゐる’가 활발하게 된 것은 室町時代인데 크리스천 문헌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 e. こなたのお出でを待って居りました(脇狂言・大黒連歌)

e처럼 ‘ゐる’의 類語인 ‘をり’의 보조동사형 ‘-て をる’도 ‘-て ゐる’와 병행하여 나타난다.²¹⁾

江戸時代가 되면 ‘-て ゐる’는 일반화하여 현대의 용법과 가깝게 된다. 예를 들어

- f. 随分つき合をしらねへが能のさ. あれほど待て居て吳なといふのにも(二編・下)
- g. あれはもた借切た奴が寝てでも居る車と思つた(浮世風呂前編 下)

등인데 g처럼 다른 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보인다.

Ⅲ. 現代語의 繼續態

1. ‘-テイル’

현대어의 계속의 의미로써 잘 사용하는 것은 ‘-テイル’인데 이는 보통

- ① 동작·작용이 계속하고 있는 것
- ② 동작·작용이 끝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로써 남아있는 것 등 두 가지인데, 이것이 이 형의 기본적 의미이다.

- a. 誠語の門内に藤野と云う男が長屋を借りて住んでいる(それから 1399)²²⁾
- b. 近所には誰もいない. 向うの方で余興が始まっている(それから 1310)

a는 ①, b는 ②의 용법인데 동작·작용의 과정을 문제로 할 때, 계속의 ‘-テイル’는 동작 작용

20) 이는 平安中期에서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다.

21) 이는 上代에서부터 보인다. 平安時代の 용례는 사람의 경우 자기자신 또는 타인의 동작 상태를 비하하거나 경시하는 기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22)それから와 門 뒤의 숫자는 「作家用語索引」에 의한 번호임.

이 시작하여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중의 부분에 주목한 표현이다. 보통 '眺める, 住む, 書く, 讀む, 聞く' 등의 동사이다.

이에 대하여 동작·작용을 문제삼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과의 존재'의 의미일 때 그 동작·작용이 이미 실현해서 그 결과가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에 주목한 표현이다. '點く, 始まる, 残る, 並ぶ, 濡れる' 등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한편 계속동사라도 '결과의 존재', 순간동사라도 '계속'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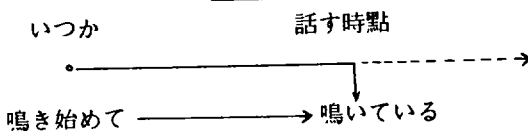
- c. 「御父さんには僕が直に話すから構いません」 「でも話がもう此所まで進んでいるんだから」(それから 4796)
- d. 電燈が消えている

c는 전자, d는 후자의 예인데, d의 경우 주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주어로서 한 개씩 '消えている'라고 하는 공간적 측면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어휘적 의미 문맥의 전후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생각하고자 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 즉 계속동사·순간동사는 그 분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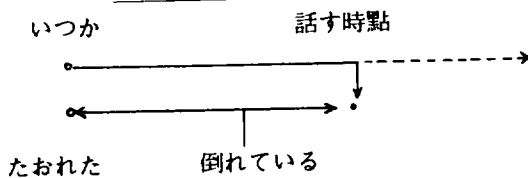
- e. 兩垂がぼつぼつと落ちている
- f. 「三年代さんはどうした」と聞いた. 「難有う, まあ相變らずだ, 君に宜く云っていた……」(それから 479-482)

e는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ぼつぼつ'의 수식에 의해 순간동사인 'おちる'가 '계속'을 f처럼 계속동사인 'いう'가 과정보다도 전달의 결과가 문제가 되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 '-テイル'의 기본적인 계속·결과의 존재를 도의시하면 다음과 같다.

(イ) 小鳥か木の上に鳴いている



よロ) 柱が倒れている



(イ)는 'できごと'의 시점이 현대와 연결하여 계속되는 과정을 (ロ)는 'できごと'의 시점이 현재와 단절되어 변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의 존재'라는 표현보다 '결과의 계속'이란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テイル’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반복’이다.

金田一春彦氏は「-テイル」의 ‘반복진행태와 반복繼續態’에 대하여 전자는 ‘ある動作・作用がくり返し行われていることを表わす’하고 후자를 ‘ある動作・作用がくり返し行われることを表わす’라 하였다.

(イ) その頃は營養失調で人がどンドン死んでいる

(ロ) 彼は毎朝バイブルを讀んでいる

(イ)는 전자, (ロ)는 후자에 해당되고

(ハ) 將軍連が死につづけた.

(ニ) あれこれ本を讀んで來たが…….

(ハ)와 (ニ)는 후자가 되듯 ‘반복’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氏が 설명한 대로 ‘반복’의 의미는 나타내는 ‘-テイル’는 ‘순간동사’ 및 ‘계속동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동작의 주체는 어떻게 될까. 「死んでいる」의 주체는 복수인데 반하여 「讀んでいる」의 주체는 단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반복’의 예를 보면

g. 彼の父は十七のとき家中の一人を斬り殺してそれが爲め切腹をする覺悟をしたと自分で常に人に語っている(それから 920)

h. 代助はこの細君を捕まえて かつて奥さんと云った事がない, 何時でも三千代さん 三千代さんと結婚しない前の通りに本名を呼んでいる(それから 1026)

i. 父は詩が好で閑があると折折支那人の詩集を讀んでいる(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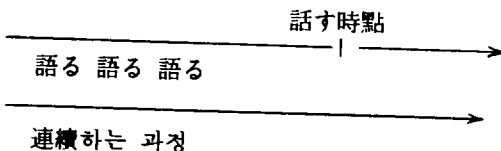
j. 西洋小間物を賣る店先では禮帽の傍に懸けてあつた襟飾りに眼が付いた. 自分の毎日掛けているのよりも大變柄が好かつたので(門・211)

g-j는 어떤 동작·작용이 몇번이나 반복해서 시작하여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일의 동작·작용에 대해 현시점에서의 ‘계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동작·작용은 전체로서 한 개의 연속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 j와 같은 순간동사가 계속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개 한개의 동작·작용인데도 그것을 연속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편 g, i와 같은 ‘계속동사’의 경우도 이것과 같이 한개 한개의 동작으로 보고 연속하는 과정처럼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이라면 ‘반복’의 용법은 (イ) ‘계속’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반복은’ 계속에서 파생된 용법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것은 단수주체에 의한 ‘반복’이다. 이를 도시해 보면 예 g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彼の父は……………常に人に語っている」



- k. 誠太郎という子は近傾ベースボールに熱中している(それから えふゆ)
 l. 近傾ではもし相撲の常館が出来たら一番地へ這入って見たいと云っている(それから 534)

k, l은 g-j와 同意이다. 단 k, l은 '近傾'과 같은 시간의 폭을 한정하는 부사에 의해 말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에 어떤 동작 작용이 시작되어서 말하는 시점까지는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시적 반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一テイル'의 용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용법인 '一スル'에 의한 '반복'의 용법과 비교해 보면

- m. 手紙のくるたびに代助は何時も丁寧な返事を出した(それから 316)
 n. 夫婦は毎夜同じ火鉢の兩側に向き合って食後一時間位話をした(門・518)

이는 어떤 동작 작용이 시작되어 끝나지 않고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一テイル'의 '반복'의 용법과 기본적으로는 같다. 단 '一テイル'에 의한 반복표현은 접속조사인 'テ'와 존재사인 'いる'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 한개 한개 반복하는 동작·작용을 전체에 '한개가 연속하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一スル'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작 작용이 한번씩 반복한다고 보고 동작·작용의 연결 또는 한개의 연속선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상 '一テイル'에는 '계속', '결과의 계속' 및 '반복' 등의 3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보았다.

2. '一テイル', '一テイク'

金田一春彦氏は '一テイル', '一テイク'가 繼續態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²³⁾

◎あれこれ本を読んで來たが……

위의 예문은 '繼續態'의 하위인 '반복繼續態'를 나타낸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兩形을 고찰한다.

보조동사형으로서의 '一テイル', '一テイク'는 동사의 '一テ'형이 이동을 나타내는 '來る' '行く'와 연결된 것이다. 본동사와 '來る' '行く'와의 결합이 강력하여 하나의 복합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

- a. 「先刻表へ出てあの花を買って來ました」と代助は自分の用園を顧みた(それから 51003-5104)

이는 다음의 b의 '一テ, ~'형의 文과 같이 동작이 순서대로 점차로 행하여짐을 뜻한다.

- b. 花屋へ這入って, 大きな白百合の花を澤山買って, それを提げて, 宅へ歸った(それから 5008)

23) 金田一春彦 「日本語動詞 アспект」 麥書房 昭和 51, p.180.

b는 「花を買って」 그리고 나서 「来る」라는 의미로서 두 개의 동작이 단순히 병렬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 c. 聞いて見ると玄関にあった車は父の客の乗って来たものであった. (それから 4711)
- d. 二人は無言のまましばらくの間竝んで歩いて行った. (それから 475)

등은 「車に乗って」 그리고 나서 「来る」·「歩いて」 그리고 나서 「行く」라는 의미가 아닌 「来る」·「行く」를 수식한다고 하는 연결관계이다. 다음의 e는 「-テ, ~」형의 文과 같다.

- e. 「何故です」と代助は冷かに落ち付いて聞いた (それから 4809-4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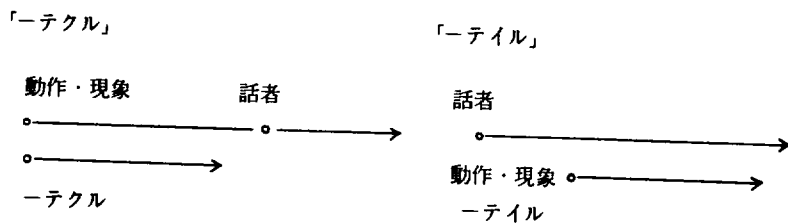
또 f, g처럼 양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 f. お米は断るのが面百くなって来た. 四度目には知らない男を一人連れて来たがその男とこそそ相談して, とうとう三十五円に値を付けた. (門 1412-3)
- g. あんなに焦ると, 電車へ乗って飛んで行く平岡の姿を見送った代助は口の内でつぶやいた(それから 1023-4)

이런 「テル」 「イク」의 용법은 「계속」의 뜻 즉 화자가 있는 곳으로 접근 혹은 멀어져 가는 뜻이 있어도 2개의 병렬의 동작 중에 이동성이 있는 「来る」 「行く」가 술어의 主로서 의미를 이루는 데에 불과하다. 보조동사인 「-てくる」·「-ている」라고 할 수 없다.

- h. 誠太郎はこの春から中學校へ行き出した. すると急に背丈が延びて来る様に思われた. (それから 3135-6)
- i. 父に對しては只薄暗い不愉快の影は近き未來に於て必ずその暗さを増してくるべき性質のものであった(それから 5410-11)

이같은 h, i는 「クル」 「イク」의 앞 동사 「-テ」가 술어의 주요부분이다 이것은 보조적으로 그 앞의 동작 현상이 화자가 있는 장소에 차츰 접근 또는 화자 쪽에서 멀어져 간다고 하는 진행하는 과정의 의미를 보태는 기능이다. 이 「クル」 「イク」는 본래의 이동의 의미를 잃고 동작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진행한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 도시해 보면



- j. こればかりではない. 人の細君が訪ねて来るのをそれほど待ち受ける趣意がないと考えた. (それから 2896)
- k. 「おや, 御呼になったんじゃないのですか. おや, おや」と云って引込で行った(それから 1046-8)

j, k은 주체의 동작이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화자(경우에 따라서는 작자)에 접근해 오는 경우와 화자로부터 차츰 떨어져 가는 경우이다. 또한 1처럼 일어난 일을 감각으로 이해하여 시간의 추이에 동반하는 물리적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l. けれども音は依然として頭の中へ響いて来る(それから 1235)

m. 雨は本當に降って來た(それから 3035)

n, o는 현상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n. それが半年ばかり繼くうちに代助の頭も胸も段段組織が變って來る様に感ぜられて來た(それから 321)

o. ただ結婚に興味がないと云う. 自己に明かな事實を握って, それに應じて未來を自然に延ばして行く氣でいた. (それから 2143-4)

이상 ‘-テイル’, ‘-テイク’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건 그 ‘계속’의 과정에는 일어난 일, 현상의 출현, 소멸, 확대, 축소 등 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은 ‘段段・順順に・次第次第に’ 등과 같은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에 의해 진행되는 의미를 강하게 한다.

3. 動詞의 連用形에 接하는 ‘-だす’ ‘-はじめる’ ‘-つづける’

‘-だす’ ‘-はじめる’의 형은 동작・작용・현상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진행 중’이라는 의미의 하위분류라 할 수 있다. 즉 「開始→繼續……」이듯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始動態’라고도 부르고 있다.²⁴⁾

‘-だす’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a. 代助は新聞を放り出した. (それから 1502)

b. 代助は返事もせずに 座の隅へ潛り込んで竹の落葉の前の方へ掃き出した. (それから 5851)

이것은 주체(또는 주체가 대상을)가 외부 또는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放る, 掃く’ 등은 이미 ‘外に出る’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독립동사인 ‘だす’가 接하여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だす’를 없애도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합동사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결합이 있는데

c. それを毎日何頭かず納めて置いては夜になるとそと行ってぬすみ出して來た(それから 4427-8)

d. 家は所の舊家で先祖から持ち傳えた山林を年年伐り出すのが重なる用事になっている(それから 3599)

24) 佐久間鼎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くろしお出版 昭和58, p. 165.

c. d처럼 2동의 동작이 나란히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前述한 ‘-テクル’ ‘-テイク’의 복합동사형 ‘-して’, ‘-それから’, ‘-來る(行く)’처럼 ‘-テ’형의 文과 같은 것이다.

e. 茶の間を通ると、門野は無細工な手をして錫の茶壺から玉露を撮み出した(それから 2914)

e는 2개의 동작이 병렬적 내지 계기적으로 실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의 동사가 ‘出す’를 수식하여 어떤 방법으로 ‘-を出す’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동사가 ‘だす’를 수식하여 ‘-のような様態’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f. その首を聞き付けて、門野も飛び出した(それから 3738)

이상의 복합동사 ‘-出す’는 다음과 같은 보조동사 ‘-出す’는 다르다.

g. そこで 平岡はハの字を寄せて 庭の模様を眺め出したが 不意に語調を更えて(それから 259)

g의 ‘-だす’는 ‘-はじめる’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出す’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앞의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작용·현상을 시간적인 폭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최소단체인 ‘개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결합하는 동사는 시간적인 폭을 갖는 계속동사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음의 h은 前述한 ‘-はじめる’와 조금 다르다.

h. これは 必竟世話を焼きるから 付け上って 人を困らせるのだろう。當分打遣って置いて向うから頼み出させるに若くはない(それから 815-6) 이것은 ‘-はじめる’의 의미보다 ‘出す’의 기본적 의미인 밖으로의 이동은 잠재되고 있는 듯하다. 어떤 공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어떠한 계기로 해방되어 밖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개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형에는 ‘出す’외에 ‘-はじめる’가 있는 데 이것은 ‘-~することを はじめる’라는 의미이다.

i. 代助は世間話も体にして、平岡夫婦の經歷をそろそろ話し始めた(それから 1376)

j. 父と兄が、近來目に立つ様に、忙しそうに奔走し始めて、その四五日は碌碌寝るひまない位だと云う報知である(それから 2027)

i는 타동사 j는 자동사에 붙은 경우인데 어느 쪽도 시간적인 폭을 갖는 동사다.

‘出す’ ‘-はじめる’는 개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서는 거의 같은데 ‘出す’는 ‘-はじめる’에 비해 보다 자연적, 돌연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寺村氏は 지적하였다.²⁵⁾

‘出す’는 일반적으로 ‘怒る, 感じる, 泣く, 笑う’ 등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붙기 쉽다.

25) 寺村秀夫 「日本語シタスト意味」Ⅱ, くろしお出版, 昭和 60, p. 176.

- k. 平岡はこう云って、しばらく冥想していた。「二人で(中略)博物館の前から話しつづけてあの橋の所まで、君は僕の爲に泣いてくれた(それから 6172-5)

이 '-つづける'에 의한 '계속'의 의미는 '-テイル'와 비교할 때 보다 「의도적·동적」임을 나타낸다. '-ている'는 존재의 의미가 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사의 연용형에 붙는 보조동사형에 의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たず', '-はじめる'에 의한 '개시'의 의미와 '-つづける'에 의한 '계속'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助詞 'つつある'

국립국어연구소의 「現代語の助詞·助動詞」에는 '동작 작용이 계속 중인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8) 万葉集 등에는 '-ている'의 의미로 나타나는 예들이 보이는데 근대에는 동작의 진행성·진행속도를 '-ている'보다 훨씬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 a. 彼が番町を散歩しながら、何故散歩しつつあるかと疑ったのは正にこれである(それから 3195)

'계속'의 의미인 'つつ+ある'형은 영어의 '계속'의 의미인 'be+ing'형의 구성과 매우 닮았다. 明治時代 이후 'つつある'형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英文譯形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처럼 '-ている'형으로는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도 'つつある'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 b. 代助はそれ讀むたびに その子供に對して、満足しつつある友人の生活を生活を想像した(それから 3607)
 c. 彼は夫の愛を失いつつある三千代をただの昔の三千代よりは氣の毒に思った(それから 4305)
 d. 三千代は今死につつあると想像した(それから 6346)

'満足する, 失う, 死ぬ' 등은 '-テイル'형에서는 '결과의 계속'을 나타낸다.

c의 '失いつつある'는 '滿した狀態'에서 '滅つて行く'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 d의 순간동사에 'つつある'가 붙고 각각의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 상태가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고 하기 보다는 「--の狀態に達する過程」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예를 들어 d의 '死につつある'란 아직까지 '死ぬ'라는 상태에 있지 않고 '死ぬ' 상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확대해서 그 중의 계속성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세 이후에 쇠퇴한 'つつ'는 현대에 이르러 'つつある'로 부활한 것이다.

'つつある' 외에도 'ながら'의 용법도 있지만 지면상 후술의 기회를 갖는다.

IV. 結 論

일본어의 '繼續態'를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쇠퇴하고 또 변화하고 새로운 형이 등장하게 된다.

쇠퇴한 것은 접두어 'あり' 그리고 'ふ'는 조동사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접미화하여 단순한 동사가 되었다.

동사의 중복형은 고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고대형 '-ある'에서 '-ている'가 발전하여 일반화하게 되었다. 'つつある'는 새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명치시대 이후의 서양문법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고대에는 조동사로 '계속'을 나타냈지만 현대에서는 보조동사형이 풍부하다.

이처럼 '繼續態'를 통시적으로 그 기능은 고찰했는데 첨가·부연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다. 次述에서는 공시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병행할 것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 松村 明 「日本文法大辭典」 明治書院 昭和 46.
 金田一春彦 「日本文法講座 1」 明治書院 昭和 32.
 國立國語研究所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 秀英出版 昭和 60
 此島正年 「國語助詞の研究」 櫻風社 昭和 48
 「國語助動詞の研究」 櫻風社 昭和 48
 「國語學史概說」 櫻風社 昭和 51
 「日本文法史概說」 櫻風社 昭和 53
 「助動詞·助詞概說」 櫻風社 昭和 58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き書房 1972
 朝日新聞社 「古事記」 朝日新聞社 昭和 38
 「日本書記」 朝日新聞社 昭和 38
 「万葉集」 朝日新聞社 昭和 38
 「吉利支門文學集」 朝日新聞社 昭和 38
 「源氏物語」 朝日新聞社 昭和 38
 岩佐正藤 「増鏡」 岩波書店 1979
 教育社 「夏月瀨石·作家用語索引」 卷5, 「それから」 昭和 59, 同卷 6, 「門」 文末의 숫자는 「作家用語索引」에 의한 번호임.

Summary

The Function of the 'Contiuative Voice':
A Diachronic Study

Chang-Ik Lee

The Japanese language has various forms in expressing 'continuative voice'. They became extinct and changed into a new form as time passed by.

What became extinct was 'あり' and 'ふ', which were originally prefixes were used not as modals but as simple verbs, being suffixes.

The redundancy of verbs has been maintained from olden times to the present, '-いる', a form of the olden times, developed into '-ている', and finally became a generalized form today. '-つつある' made a new appearance, possibly influenced by Western grammar after the Myong-chy period.

On the other hand, whereas the modals represented the meaning of 'continuation' in the old times, the auxiliaries often do so in modern times.

This paper diachronically surveyed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he 'continuative voice'.